

# 광주 낭만 담은 '폴리'로 구도심 생기 '폴폴'

3번째 시리즈 맞은 광주폴리

폴리 투어 인기 1800명 신청  
틈새호텔 체험·버스킹 등 다채  
11월 워크숍서 폴리Ⅳ 구상

광주를 수놓고 있는 '광주폴리'가 구도심에 유동인구를 불러넣고 있다. 견학 오는 외국인이나 구경하는 시민이 찾으면서 주거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락하고 있는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폴리 투어 신청자가 1800명에 달했다. 재단에 신청하면 2시간 동안 폴리 해설사를 파견해주는데, 비공식으로 폴리를 찾는 외국인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빚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된 도심재생 예술프로젝트인 광주폴리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됐다. 2011년 11개(사업비 33억원)를 시작으로, 2013년 8개(25억원), 2017년 11개(27억원) 등 모두 30개(총사업비 85억원)가 구도심 곳곳에 들어섰다.

민선 6기에 시작한 광주폴리Ⅲ 사업은 광주의 이념과 정서를 담았던 광주폴리Ⅰ,Ⅱ 사업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가한 뒤 '도시의 일상성,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했다.

광주폴리Ⅲ 사업으로 설치된 폴리는 청년실업과 청년창업, 공예가 등 사회적 문제를 식당과 카페라는 테마로 풀어낸 '룩폴리',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바라



'광주폴리 Ⅲ' 작품 중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의 '뉴 폴리'.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고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뷰폴리', 초등학생·학교·학부모·시민단체·주민들이 시민들의 통행권과 보행권을 지켜 낸 'GD폴리' 등이 있다. 또 대국민아이디어와 시민들이 현상공모작을 선정한 '뽀뽀폴리',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미니폴리' 등 각 작품마다 문화중심도시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작품은 가족·학교·학술단체 등의 도시재생 선진지 발굴 방문 장소가 되고 있으며, 세계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건축·문화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광주폴리 투어, 틈새호텔 체험, 버스킹 공연,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폴리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시전'에도 초청돼 세계 55개국 도시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오는 11월 5일까지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전시되고 있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7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도 광주폴리Ⅲ 사업(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국제워크숍을 개최한 후 '광주폴리Ⅳ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권 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구도심에는 거주인구도 필요하지만 유동인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유동인구를 적정수준에 유지해야 상업 및 편의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일자리 늘린 기업 27일까지 모집...자금·면세 혜택

광주시는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이달 1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우수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6년 9월~2017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으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정리하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인증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

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디지털인사문화 지원 등 15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며,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2010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지금까지 241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추석 대비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광주시는 추석을 대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과 여객시설, 공연시설, 관광시설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109곳이다.

점검은 기동 등 시설물 주요 구조부 안전상태, 전기·가스·소방 등 주요설비시설의 관리실태, 시설물 운영에 따른 기준의 적정성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상태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관계 공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살필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차 한잔할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차(茶)산업 발전과 차문화 확산을 위해 '제11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를 14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는 보성군 주최의 '보성세계차박람회', '세계차품평대회'와 동시에 개최, 차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도(茶道) 등 보다 친근한 차 생활을 선보인다. <관련기사 22면>

특히 올해 전시회는 세계차연합회의 홍콩 운영자를 비롯, 프랑스 바바리류프린, 인도 날리모다, 일본 왕야노, 뉴질랜드 자자 등 10개국의 세계적인 티마스터(Tea Master)들이 광주에 와 한국의 차문화와 산업에 대한 품평과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210여개 업체가 참여해 강진, 보성, 장흥, 정읍, 하

동 등 국내 주요 명차들과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명차를 전시, 판매하며 다양한 시음행사도 진행된다.

'세계 차·대한민국 차 품평관', 'TEA Food 특별관' 등 4개의 테마별 특별관과 '세계 티(Tea) 포럼', '국제 티블렌딩(Tea Blending)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장 내 특별무대에서는 차 생산농가들의 판매를 촉진하고 참관객들에게 이색경험을 선사할 '나눔 차 경매'가 상시 개최되며 경매 수익금은 기부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한다. '남도를 담은 찻그릇'에서는 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청년 도예가들의 새로운 도예기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홈페이지(www.teaexpo.or.kr)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감정노동자들 토닥토닥 윤장현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앞에서 1박2일 힐링캠프에 참가하는 광주시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0월 개소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계약직 공채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광주'를 구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인재 6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6명(1급 팀장 2명, 2~3급 팀원 4명)으로 운영지원팀 1명(2~3급), 교육연구팀 1명(2~3급), 도시재생팀 2명(1급 1명, 2~3급 1명) 마을공동체팀 2명(1급 1명, 2~3급 1명)이다.

이번에 채용될 직원은 2년 계약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전환 여부를 센터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센터 인사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시직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다. 이번 신규 직원 채용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 따라 사진, 출신지, 학력,

가족사항, 신체적 조건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 응시자의 신상정보 지원서에 작성하지 않도록 해 편견없이 공정하게 심사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토·일·공휴일 제외) 광주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청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은 26일이며, 29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광주시 지역공동체추진단(062-613-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법인 설립 등기와 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개소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각종 모임·행사·세미나는  
지리산 온천지구 K호텔 에서!**

★ K호텔의 5대 특징 ★

- ▶ 깨끗하고 저렴한 객실요금
- ▶ 넓고 쾌적한 대형 세미나실
- ▶ 전망좋은 바베큐 시설
- ▶ 무료로 사용 가능한 노래방 시설
- ▶ 직접 조리해서 먹을수 있는 식당
- ▶ 문의. 010-3605-5000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